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Economic Coping Behaviors of Rural Households with Debt

- The Case of Choong-Nam Area -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 孫 尙 希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ersity

Assistant Prof. : Sanghee, Sohn

본 연구는 부채농가의 재정향상을 위한 경제적 대처행동의 양상과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농촌가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대처행동에 대한 부채관련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은 6개 속성으로 분류되었으며 '소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 노력',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의 순으로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부채관련변수 중에서 총부채액, 부채부담, 부채부담감은 각 대처행동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계를 보였다. 소득대비 부채상환액과 소득대비 부채상환요구액으로 측정된 부채부담은 대처행동에 대해서 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3) 대처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부채관련변수와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환경적 특성변수들은 각 행동에 대해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가계부채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부채로 인한 가계의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부채와 가계복지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그 하나는 소비자

성향을 가지고 최적화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차용이나 저축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기간간 선택이론에서의 긍정적인 관점이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합리적인 가계는 부채와 다른 자산과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여 소득, 자산이 많은 가계일수록 부채에 대한 수요가 큰 경향을 보이고, 또한 부채유무자체가 가계의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Dunkelberg & Stafford, 1971 ; Kinsey & Lane, 1978 ; Choe & Johnson, 1992)은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교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한편,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서 재정적자나 지불연체, 가계과산과 같은 재정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있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는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가계가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yan & Maynes, 1969; Dessart & Kuylen, 1986; 윤정혜, 1992; 성영애·양세정, 1995).

농촌가계의 부채는 대부분 생산활동을 위한 것인데¹⁾, 부채를 상환할 만큼의 소득창출이 어려울 때 가계의 구매력이 불안정하게 되어 결국 소비성 부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생산성 부채는 1980년대의 소값, 돼지값 파동 등 農政의 실패와 저곡가정책, 근래의 외국 농산물의 대량수입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농업의 수익성 하락에 의해 심화되고 있어, 정책적인 개선없이 지속적인 부채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가계의 복지에 부정적 결과들을 수반할 것이라 보여진다. 본 연구는 농촌가계의 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부채를 가진 농촌가계가 재정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농촌가계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울러서 농가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재정문제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정상태 향상을 위한 농촌가계의

- 1) 1992년 농어가경제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농가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약 570만원이었다. 그 중 농기계, 영농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생산성 부채는 약 410만원이었고, 소비성 부채는 약 98만원, 나머지는 부채상환을 위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993. 5. 19).
- 2) 각 영역별로 재정관리로는 지출기록, 지출계획, 목표설정의 3문항, 비공식적 경제행동으로 공판장에서 구매, 중고품 매매와 구매, 교환, 하찮은 일이라도 하기 등의 5문항, 본인노동력 활용으로 주택수리, 과일이나 채소 재배, 의복제작의 직접수행 등의 3문항, 가족노동력 활용으로는 취업시간 늘리기, 부업 또는 겸업, 가족구성원의 취업 등 3 문항, 재정적 확대로는 소비자신용이나 부채의 이용, 저축사용의 2문항을 포함하였다.

경제적 대처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부채관련변수에 따라 농촌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이 다른가?

〈연구문제 3〉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관련연구의 고찰

Dessart등(1986)은 부채문제가 커질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인간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며 이렇게 되면 악화되어가는 재정상황을 극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가계의 대처행동은 Voydanoff & Donnelly(1989)에 의해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들은 경제적 디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가족의 자원과 대처행동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오하이오주의 630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대처행동은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비공식적 경제(Informal Economy), 본인노동력 활용(Do-It-Yourself), 가족노동력 활용(Family Work Effort), 재정적 확대(Financial Overextension)의 5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²⁾. 조사대상가계는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많을수록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가는 소득의 수준과 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대처행동의 속성에 따라 경제적 디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다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재정적 확대와 본인노동력 활용은 완화효과(buffering effects)를, 재정관리는 오히려 악화효과(exacerbating effects)를 나타내었다.

Voydanoff등(1989)의 척도를 이용한 국내연구로 전라남북도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황덕순(1993)의 연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계일수록 경제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대처행동 점수와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와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저소득 도시가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이들 가계의 소

득획득, 소비지출에서의 적응노력을 밝히고 있다. Dunkelberg등(1971)은 취업자수나 취업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은 소득획득방식에서의 단기적인 적응이 가계의 차용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울 중심부의 빈민가를 연구한 박영숙(1983)과 생산직 노동자가계를 대상으로 한 팽경인(1988)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 가계는 소득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가구원모두의 가능한 소득을 결합하여 가족의 생계유지비용을 충당하며 상시고용 뿐 아니라 다양한 임시고용 형태의 주변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가계가 빈곤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지출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밝혔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비에서의 절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1988년도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한 심영(1993)의 연구도 부채부담이 많은 가계가 오락비나 보험료와 같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지출비목 뿐만 아니라 식비, 주택, 연료비와 같은 기본적인 비목에 대해서도 예산지출을 감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채상환이 부채용도외의 지출을 억제시키는 우선적 비목임을 지적하였다.

재정관리행동은 가계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해결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문제를 가진 가계가 재정관리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저소득 가계가 오히려 재정관리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낮음을 밝히고 있다. Dessart등(1986)은 1980~1981년 네덜란드가정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상환액이 .20이상인, 즉 부채부담이 심각한 가계는 부채결과의 심각성이나 자신의 자원을 잘 평가하지 못하고 금전을 관리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팽경인(1988)은 생산직 노동자가계가 취업주부나 전업주부를 막론하고 고정지출외의 지출이 제한된 이유로 가계부 정리를 필요 없는 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저소득가계의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은 낮은 교육수준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윤정혜, 1986).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순미(1993)는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인지하는 경우 계획적인 재무관리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현재의 재정

상태, 생활수준, 생활격차가 재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 현재의 재정관리행동과 재정적 만족이 미래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금전제약을 심각하게 느끼거나 생활표준과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관리능력이 낮으며, 재정적으로 만족할수록 미래의 재무계획을 만족스럽게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문제를 가진 가계가 재정관리행동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부족하나 소득획득에서의 적응방식을 논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윤정혜(1984)는 농촌의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노동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였고 공업위위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의 도시산업부문의 취업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농가노동력의 심각한 부족현상과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가족의 분해가 일어나서 가족원간의 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윤수중(1991)은 농업의 생산력적 조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中農과 貧農은 겸업, 농외유출, 농업경영 또는 소작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하려고 하며, 특히 빈농은 농업소득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타인의 농업경영에서의 임금수입, 즉 賃勞動被雇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고, 그 가운데 농업노동보다 농외노동에 의한 임금수입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빈농의 경우 자녀들의 부분이농으로 도시에 취업하여 보내오는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나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7)도 영세농으로 갈수록 겸업이나 농외소득, 또는 도시로 이주한 가족원으로부터의 이전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을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척도 및 연구모형

〈연구문제 1〉의 재정상태 향상을 위한 경제적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Voydanoff등(1989)의 경제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

동척도를 모형으로 하고 다른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소득, 소비, 재정관리와 관련된 변수들을 몇가지 보충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문항들은 삭제하여 총 23개 문항을 설정하였다.

가계의 대처행동은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Voydanoff등, 1989; 황덕순, 1993)에 기초하여, <연구문제 2>의 부채관련변수로는 총부채액 뿐 아니라 부채부담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부채부담감)을 포함하였다.

대처행동 = f(총부채액, 부채부담, 부채부담감)

대처행동에 대한 부채관련변수외의 다른 영향요인 들로는 우선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인지를 반영하는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대처행동의 수행정도는 수행능력이나 가족자원, 또는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는 가계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특정 대처행동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해당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처행동 = g(부채관련변수,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환경적 특성변수)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로는 가계의 연평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가구주나 배우자의 농외취업여부와, 금융자산, 경지규모를 선정하였고³⁾, 소득안정성인지를 포함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변수로는 가계의 자

3) 이전에는 경지규모에 따라 부농과 빈농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농업노동력의 급속한 감소 및 농업 기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생산력이나 작물에 따른 경영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단순히 경지규모를 가지고 부농, 빈농을 구분하기 어렵다. 오히려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이 크거나 농외취업 등 겸업을 하는 경우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앞의 논의(윤수중, 1991)를 근거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농가소득과 농외소득을 따로 분리하였고, 농외취업 변수와 금융자산을 포함하였다.

4) 근교의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공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과 전형적인 답작지역, 도시근교 농업 지역을 고루 포함하였다. 조사대상가계의 지역별 분포는 금산, 공주, 청양, 당진, 태안, 예산, 아산에 각 10가구씩, 연기에 15가구, 천안, 서천, 보령에 각 20가구씩, 부여와 논산에 각 35가구씩으로 되어 있다.

원과 경제적 요구수준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족생활주기를 선택하였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1984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근교의 공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이 대처행동의 양상에 영향을 주리라고 사료되어,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공장이 있는지 여부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2. 자 료

분석자료는 충청남도의 총 16개 군 중 유의적으로 선정한 13개군에서 215가구를 추출하여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⁴⁾. 예비조사는 1994년 12월 25일부터 1995년 1월 4일까지 이루어졌고, 설문지의 수정보완 후 1995년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대학생 17명과 해당 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직원 4명이 면접원으로 참여했다. 수집된 자료중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03가계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변수의 측정

대처행동변수들은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경제적 대처행동의 규명은 본질적으로 탐색적 성격을 가지므로, <연구문제 1>의 대처행동 속성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총부채액은 농촌가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농협, 은행 및 금융기관부채, 사채, 미리 타고 덜 넣은 겹돈, 덜 갚은 할부금, 외상금액)의 부채를 포함하였다. 부채부담은 두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는데, 하나는 가계소득에 대한 부채상환액의 비율이고 (Ryan등, 1969 참조), 다른 하나는 총부채액을 상환 기간으로 나눈 값(부채상환요구액)의 가계소득에 대

5) 총부채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값을 부채상환요구액이라 명명한 것은 농촌 가계의 부채상환방법이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상환기간이 끝날 때 부채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부담은 아니더라도 부채원금에 대해 요구되는 상환부담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농촌가계의 소득이나 부채상환 단위는 월간보다는 연간이 더 일반적이어서 모두 연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한 비율이다(성영애 등, 1995 참조)³⁾. 부채부담감은 '전혀 경험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2>의 부채관련변수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일원분산분석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통한 추후검증, T-검증을 사용하였다.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의 관련요인규명을 위해서 부채를 가진 농가만을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요인분석으로 규명된 각 대처행동의 정도이다. 독립변수로서 농업소득은 지난 일년간 농사를 지어서 번 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한 순수입으로, 농외소득은 농사일 외의 급료, 노임, 부

업, 임대료나 이자, 자녀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과 유가증권, 계불입금액, 사채준 금액 등을 합한 값을 사용하였다. 소득안정성인지는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다', '조금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생활주기는 신혼기가계가 드문 자료의 특성상 만자녀를 기준으로 초등교육기, 중고등교육기, 대학교육기, 자녀독립기로 구분하였다. 가구주나 배우자의 농외취업여부와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 공장유무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AS/P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	변 수	구 분	%
총부채액(A)	평균(원)	14,795,500	농외취업(가구주나 배우자)		22.2
	보유가계	91.1			
연평균 부채상환액(B)	평균(원)	2,883,300	가구주 성별	남자	93.6
연평균 부채상환요구액 (C=A/상환기간)	평균(원)	10,571,400		가구주 연령	평균(세)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 (B/가계소득)	0	37.8	40세미만		18.2
	0.25미만	34.3	41-50세미만		29.6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요구액 (C/가계소득)	0.25이상	27.9	51-60세미만		33.5
	0	8.9	61세이상		18.7
부채상환요구액 (C/가계소득)	0.25미만	34.5	가구주 교육수준		국졸이하
	0.25-1미만	27.5		중졸	22.3
부채부담감	1이상	29.1		고졸	30.2
	심각함	58.4		대졸이상	3.9
농업소득	평균(원)	8,857,600	가구원수	평균(명)	4.6
농외노동소득	평균(원)	3,540,500		가족생활주기	
이전소득	보유가계	55.2	초등교육기		14.8
	평균(원)	626,000	중고등교육기		20.2
총소득	보유가계	24.6	대학교육기		9.9
	평균(원)	13,024,200	자녀독립기		55.2
금융자산	평균(원)	8,239,700	공장수	평균(개)	2.8
	보유가계	83.3		0	32.3
경지규모	1,500평미만	24.6		5개미만	51.8
	1,500-3,000평미만	33.7		5개이상	25.9
	3,000-6,000평미만	31.2			
	6,000평이상	10.6			
주택소유여부	자가	93.5			
소득안정성인지	불안정	58.1			

IV. 결과와 논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부채관

련변수만 살펴보면, 조사대상가계의 91.9%가 부채를 보유하였고, 평균총부채액은 약 1,480만원이었다. 소득의 1/4이상을 부채상환에 지출하는 가계는 27.9%에 해당했고, 부채상환요구액이 1이상인 가계는 29.1%

표 2. 최고요인부하치에 따른 요인의 해석

대 처 행 동 변 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I. 소극적 노력						
소비전에 꼭 사야하는지를 검토함	.71					
고정지출 먼저, 다른 지출은 현재의 소득범위내에서 함	.42					
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모아둠	.51					
영수증을 챙겨받고 보관함	.58					
II. 적극적 노력						
부채상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61				
농산물 판로확보나 가격적정화를 위해 다른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함		.79				
이웃이나 친척과 소득증가나 부채감소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눔		.76				
III. 절약 및 노동력 활용						
식료품은 가능한 한 자급자족하고 시장구매를 적게 함			.50			
의복은 친척, 이웃들과 상호교환하거나 물려입고 꼭 필요한 것만 삼			.76			
농사일을 최대한 많이 함			.59			
주택수리나 필요한 것은 재료만 사서 직접하거나 만듦			.58			
IV. 재정관리						
농작물이나 영농방식을 바꾸어 소득을 올리고자 함				.44		
평소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 지출함				.68		
지출을 기록함				.61		
장래의 특정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계를 함				.60		
V. 의존적 행동						
결혼한 자녀나 부모, 친척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음					.55	
재정문제에 대해서 다른 가족원과 상의함					.56	
농가라면 누구나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재정문제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지 않음					.61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함					.67	
VI. 한계적 행동						
부업이나 농외취업을 하며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함						.44
소득이 높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가족전체나 가족원의 일부가 도시로 이주할 것을 고려함						.62
부채를 갚기 위해 다른 부채를 얻음						.62
부채를 갚기 위해 재산 중 일부를 처분함						.56
고유값	3.37	2.28	1.99	1.54	1.49	1.27
요인별 설명력(%)	2.2	2.2	2.0	2.0	1.9	1.6
평 균	3.32	2.85	2.95	2.53	2.13	1.99

표 3. 부채관련변수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의 분산분석결과

변 수	구 분	소극적 노 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 노 력	재정관리	의존적 행 동	한계적 행 동
총부채액	0원	13.67	11.78	6.29C	9.78	9.44A	6.53B
	~500만원	13.36	11.66	8.13B	9.60	9.38A	7.86A
	~2,000만원	12.97	11.81	8.81AB	10.05	8.73A	7.71A
	2,000만원이상	13.39	11.90	9.27A	10.78	7.22B	8.72A
	F값	0.74	0.08	8.80***	1.86	11.38***	4.32**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	0	13.33A	11.38	8.14	9.68	8.63	7.73B
	~0.25	13.80A	12.30	9.00	10.57	8.59	7.64B
	0.25이상	12.50B	11.71	8.55	10.15	8.36	8.61A
	F값	5.95**	2.32	2.44	1.84	0.24	2.95*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요구액	0	13.67	11.78	6.29B	9.78	9.44	6.53B
	~0.25	13.46	11.93	8.97A	10.53	8.73	7.70A
	~1	13.06	11.56	8.64A	10.06	8.48	7.84A
	1이상	13.10	11.85	8.64A	9.79	8.09	8.76A
	F값	0.67	0.21	6.45***	0.85	1.86	4.56**
부채부담감	전혀 경험없음	14.41A	11.82	7.29B	11.27A	9.23A	6.38B
	심각하지 않음	13.41B	11.77	8.61A	10.61AB	8.97AB	7.08B
	심각함	12.97B	11.80	8.75A	9.64B	8.19B	8.68A
	F값	4.49**	0.00	3.55*	4.69**	3.51**	15.28***

* $p \leq 0.05$ ** $p \leq 0.01$ *** $p \leq 0.001$ 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인데, 이는 이들 가계가 소득을 전부 지출하여도 상환기간내에 부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58.4%의 가계가 부채부담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각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대처행동의 분류

표 2는 경제적 대처행동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를 최고요인부하치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대처행동으로 모두 6개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각 요인의 명칭은 세부항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극적 노력', '적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이라 하였다⁶⁾.

6) 부업이나 농외취업은 그 성격상 소득증대와 관련된 변인으로 요인2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요인분석결과 요인6에 묶여졌다. 그러나 관련연구(윤정혜, 1984; 윤수중, 1991)에서 보면, 농촌 가계의 경우 부업이나 농외취업은 결국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계적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요인6에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각 요인의 평균값은 요인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요인3, 요인2, 요인4, 요인5의 차례이며 요인6이 가장 낮았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계는 경제적 대처행동으로 '소극적 노력'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고, '절약 및 노동력활용'과 '적극적 노력', '재정관리'도 어느 정도 하는 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존적 행동'과 '한계적 행동'은 평균적으로 하지 않는 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채관련변수에 따른 경제적 대처행동

일원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표 3), 총부채액이 2,000만원 이상인 가계는 부채액이 그보다 적은 가계에 비해 '적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의존적 행동'은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채농가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부채가 없는 농가에 비해 '적극적 노력'과 '한계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으로 측정된 부채부담의

표 4. 부채능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 노력	재정 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
부채관련변수							
총부채액		0.0002	-0.0001	0.0002	0.00001	-0.0003*	0.0001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		-0.82**	0.16	-0.02	-0.10	-0.19	0.37
부채부담감		-0.40*	-0.31	-0.16	-0.64***	-0.23	0.36*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농업소득		-0.0001	0.0001	0.001*	0.0004	-0.0002	0.0003
농외소득		0.00003	0.001*	0.001	0.0002	-0.001	0.001**
농외취업 : 취업=1		0.07	-0.81	-0.97*	-0.14	0.76	-
금융자산		-0.00003	-0.001**	0.0001	0.0001	0.0002	-0.0004**
경지규모		0.16	0.31	0.22	0.29	0.14	-0.14
소득안정성인지		0.06	-0.96***	-0.07	-0.60*	-0.16	-0.77**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가구주 교육수준 : 고졸이상=1		-0.58	-0.49	-0.98*	1.02*	-0.22	0.04
가구원수		0.03	0.31*	0.22	0.24	0.01	0.09
가족생활주기 (비교집단 : 자녀독립기)							
초등교육기		-0.10	-0.68	0.08	0.85	-0.07	0.36
중고등교육기		0.24	-0.44	-0.14	1.24*	-0.87	-0.37
대학교육기		1.11*	-1.03	0.52	-0.01	-1.38*	-0.58
환경적 특성변수							
공장유무 : 1개이상=1		-	-	-	-	-	-1.10**
상수항		13.75	13.38	7.33	10.15	10.75	8.95
R ² _{adj}		0.07	0.11	0.13	0.27	0.16	0.24
F값		1.99*	2.51**	2.80***	5.59***	3.36***	5.02***

*p<0.05 **p<0.01 ***p<0.001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경우, 부채부담이 0.25이상인 가계는 다른 가계에 비해 '소극적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적 행동'은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채가 없는 가계와 부채부담이 0.25미만인 가계는 대처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요구액으로 측정한 부채부담을 보면,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부채부담이 전혀 없는 가계에 비해 '적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하고 한편으로 '한계적 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부채액의 효과와 같다. 이로 보아 상환기간을 고려한 부채상환요구액은 실제부채상환액으로 인한 부채부담과 같은 효과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대처행동의 수행에 총부채액이 갖는 효과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채부담감에 따라 대처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부채로 인한 심리적인 피로움이나 부담감을 느껴본 가계는 부담감을 전혀 느껴보지 않은 가계에 비해서 '소극적 노력'을 덜 하고 '적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하며, '재정관리'와 '의존적 행동'을 덜 하고 '한계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채능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4는 부채를 보유한 농촌가계를 대상으로 경제적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⁷⁾. 회귀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각 종속변수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7% 부터 27%까지로 나타났다.

각 대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소극적 노력'에 대해서는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부채부담감, 가족생활주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녀독립기의 가계에 비해 대학교육기 가계는 '소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기 가계가 자녀교육비의 큰 부담으로 인해 여타의 소비지출을 더욱 긴축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채부담과 부채부담감이 큰 가계일수록 '소극적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채상환으로 인해 이미 긴축재정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소득범위내에서 소비하거나 돈을 조금씩 모아들여 유조차 없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절약 및 노동력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외소득, 금융자산, 소득안정성인지와 가구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채농가는 농외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인지할수록 '절약 및 노동력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외소득이 농가의 농업기반이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윤수종, 1991),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계가 '절약 및 노동력활용'을 더 많이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oydanoff등(1989)도 소득불안정성과 노동력활용간의 정(+)적 관계를 밝힌 바 있다. 가구원수의 정(+)적 영향은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절약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커짐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많아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채농가의 재정상태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농업소득과 농외취업, 가구주

교육수준이었다. 농업소득은 가계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농외취업과 가구주 교육수준은 부(-)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농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가계가 소득증대와 부채감소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임을 의미한다. 가구주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갖는 가계가 '적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노력하는 행동양식이 교육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표 3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총부채액은 독립적인 효과가 없어졌는데, 이는 부채와 소득간의 정(+)적인 관계(Muller등, 1984)로 미루어 볼 때 감추어졌던 소득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채농가의 '재정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채부담감, 소득안정성인지, 가구주 교육수준, 가족생활주기였다. 부채부담이 크고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인지하는 가계일수록 '재정관리'를 덜 하였는데, 이는 김순미(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 부채관련변수 중에서 주관적 인지변수만 '재정관리'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것은, 팽경인(1988)에서도 지적된 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가계의 재정관리에 대한 동기의 부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고졸이상인 경우 '재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과 재정관리행동간의 정(+)적 관계를 밝힌 윤정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중고등교육기에 있는 가계가 자녀독립기 가계에 비해 '재정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고등교육기의 현재 뿐 아니라 자녀교육비마련과 같은 대학교육기에 대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채농가의 '의존적 행동'에 대해서는 총부채액과 가족생활주기만이 유의미한요인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액이 많을수록 '의존적 행동'을 덜 하는 것은 일반적 통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부채액이 많은 가계가 오히려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을 가짐을 나타낸다. 대학교육기 가계가 자녀독립기 가계에 비해 '의존적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독립한 자녀가 의존할 가족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대학교육기 가계는 가구주의 연령상

7) 종속변수는 각 요인에 속한 대처행동변수값의 습이다. 부채부담변수로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요구액은 부채가계의 경우 대처행동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표 3), 가계소득대비 부채상환액과 같이 사용할 경우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회귀식에서 제외하였다. 공장유무는 농외취업과의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대처행동의 내용상 관련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계적 행동의 회귀식에만 포함하였다. 각 회귀식에 대하여 회귀분석의 가정들을 검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이 없었고 3-6번째의 회귀식은 잔차가 정규확률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1, 2번째의 회귀식에 대해서는 이상치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을 개선하였다.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주도하는 연령층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계적 행동’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부채 부담감, 농외소득, 금융자산, 소득안정성인지, 공장 유무가 있었다.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농외소득이 많으며 금융자산이 적고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인지하는 가계일수록 ‘한계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업이나 농외취업, 도시이주, 다른 부채로 부채상환,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상환등의 행동이 경제적으로 한계상황에 있는 부채농가들이 어쩔수 없이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대처행동임을 증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89)의 농촌 1575 가구에 대한 조사에서도 아주 잘 사는 층을 제외하고는 못산다고 생각할수록 도시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화이후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농촌가계의 해결수단으로 이농이 고려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도시빈민으로의 유입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장유무가 부(-)적 관계를 보인 것은 취업을 고려할 수 있는 공장의 존재가 ‘한계적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부채농가의 가계복지와 관련된 몇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채농가가 지출의 낭비를 막고 지출을 줄이며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소극적 노력’과 ‘절약 및 노동력활용’에 대해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은, 이것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도시빈민이나 노동자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농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적응양식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채부담과 부담감이 클수록 오히려 ‘소극적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평소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 여유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소극적 노력’을 하는 가계가 부채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음으로 해서 부채 부담 또는 부채부담감과 부(-)의 관계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라면 부채부담과 부담감이 큰 가계를 대상으로 소비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부채상환과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의 높은 평균점수도 이것이 부채농가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동양식임을 보여준다. ‘적극적 노력’은 농업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의 경우, 가구주가 고졸미만인 경우 더욱 많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경우 농산물 판로확보등의 소득증가방법에 대한 정보의 요구도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중 소득증대 및 부채감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서 부채부담이 커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가계를 유인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만족, 생활만족, 생활수준향상과 관련지어 긍정적인 수단으로 논의되어 온 ‘재정관리’행동은 부채농가가 그저 그렇게 수행하는 정도이다. 교육수준과 아울러 부채부담감, 소득안정성인지와 같은 주관적 인지변수가 특히 중요함을 고려해볼 때, 재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부채나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관리를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게 될 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앞서의 논의(Voydanoff등, 1989)도 가능하다고 볼 때, 농가경제의 향상은 재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만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존적 행동’과 ‘한계적 행동’의 평균점수는 낮은 편으로 부채농가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아님을 말해준다. 총부채액이 많을수록 ‘의존적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채가 많은 농가일수록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바람직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환금성이 큰 금융자산과 소득의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한계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장의 존재가 ‘한계적 행동’에 대한 완충역할을 함을 고려해 볼 때, ‘한계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부채농가에 대해서는 공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훈련과 교육등을 통해 부채상환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2) 박영숙(1983). 도심지 빈민의 경제적 적응방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4)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29-50.
- 5) 윤수중(1991). 농민층의 계급적 성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287-309, 서울: 다산출판사.
- 6) 윤정혜(1984). 농가경제의 측면에서 본 농촌여성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2(4), 147-157.
- 7) 윤정혜(1986). 도시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8) 팽경인(1988).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1987).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서울: 민중사.
- 10) 한국소비자보호원(1989). *농촌 소비생활실태와 의식구조*.
- 11)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12) Dessart, W.C.A.M. & Kuylen, A.A.A.(1986). The nature, extent, causes, and consequence of problematic debt situations. *Journal of Consumer Policy* 9(3), 311-334.
- 13) Dunkelberg, W.C. & Stafford, F.P.(1971). Debt in the consumer portfolio: Evidence from a panel study. *American Economic Review* 61(4), 598-613.
- 14) Magrabi, F.M., Chung, Y.S., Cha, S.S. & Yang, S.J.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 15) Ryan, M.E. & Maynes, E.S.(1969). The excessively indebted: Who and wh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2), 107-126.
- 16) Voydanoff, P. & Donnelly, B.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